

미사 시간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06:00						
09:30	06:00		10:00		10:00	
11:30						
19:00		19:00		19:00		16:00
유아 세례						
3·6·9·12월 첫 토요일 특전미사 후						
예비신자교리	주일: 09:30, 수·목: 20:00					
고해성사	매 미사 20분 전					

공덕동



수호성인 : 그리스도 왕
121-801 서울시 마포구 공덕105-233
http://www.kongdok.or.kr

주임신부 : 이 재 을(사도 요한)
☎ 718 - 1044
수녀원 : 임 병 희(소화테레사)
박 지 윤(마리 피 앓)
☎ 718 - 1043
사무실 : ☎ 718 - 1040 ~ 1
총회장 : ☎ 011-1706-8949
연령회장 : ☎ 017- 701-0185
사랑의집 : ☎ 718 - 1042
F A X : ☎ 714 - 6258

♣ 연중 시기 신앙생활

- 아침, 저녁 기도를 바칩시다.
- 매일 성경을 6-7쪽 읽읍시다.
- 가족기도모임, 대화합시다.
- 주님 이름으로 서로 칭찬합시다.

♣ 요일 말씀 꽃송이

- 월~일까지 매일 암송합니다.
- 아침, 낮, 밤에 암송합니다.
- 10번씩 40번 외우 읊니다.
- 하루에 한두 차례 말씀 중심으로 성찰합니다.
- 집, 직장, 학교, 생활 중에 암송합니다.

♣ 설 합동위령미사

일 시 : 2. 3(목) 11:00(오후 7시 미사는 없습니다)
2. 2(수), 4(금) 미사는 각각 오전 10시
미사예물은 미리 사무실에 내주십시오.

♣ 2011년 교무금 책정

2010년도 미납금은 완납하시고, 2011년도 교무금은 세대별로 월 책정금액을 사무실에 오셔서 책정을 하시고 납부하십시오.

♣ 성령기도회 특강(매주 수요일 19:30)

일 시 : 1. 19(수) 19:30(장소 : 3층 교리실)
강 사 : 이상기 가브리엘
주 제 : 성령의 불로 채우소서.

♣ 2차 현금(1. 16)

사랑의 음식나눔회와 사랑의 집(다문화 가정)을 위한 현금

♣ 사제서품

일 시 : 2. 8(화) 14:00(장소 : 올림픽광장 체조경기장)
서울 국제선교회 이영중 바오로 부제가 하느님 은총이 가득한 서품을 받으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구역 미사

일 시 : 2. 9(수)부터 매주 수·금요일 20:30
장 소 : 구역 가정

♣ 첫영성체(대상자 : 21명)

구역	1	2	3	5	6	8	13	17	18	20	21	23	24	28
대상	1	1	1	3	1	1	1	1	2	1	3	3	1	1

접 수 : 토요일(초등부 교사), 평 일(사무실)

♣ 베리파스 교사회 하루피정

1. 24(월) 08:00 - 16:00 본당(성전, 강당)에서 있습니다.
베리파스는 가톨릭 신앙, 인성교육 초·중·고 교사회입니다.

♣ 제대 초 봉헌 : 주일(성당마당), 평일(사무실)

♣ 남성 총구역 지역별 회의

1·8지역 : 1. 17(월) 20:00 2지역 : 1. 18(화) 20:00
4지역 : 1. 22(토) 20:00 7지역 : 1. 24(월) 20:00
3·10지역 : 1. 23(주일) 13:00

♣ 단체 모임

사 도 회 : 1. 16(주일) 13:00
대 건 회 : 1. 16(주일) 13:00
안 나 회 : 1. 21(금) 11:00
분 도 회 : 1. 25(화) 20:00
남성 울뜨레야 팀 회합 : 매주 주일 10:30

♣ 미사안내

사 도 회 : 1. 16, 꾸 리 아 : 1. 23

♣ 차 봉 사

성령기도회 : 1. 16, 모니카회 : 1. 23

♣ 서울 국제선교회 후원회 미사

일 시 : 1. 31(월) 11:00

♣ 성가번호(연중 제2주일, 1. 16)

구분	시작	화답	봉 헌	성 체	마침
금주	32	57	513, 332, 512	183, 163, 33	2
다음	329	421	332, 512, 513	179, 174, 180	29

구 분	주님 세례축일(1. 9)						주님 공현 대축일
신자수	특 전	06:00	09:30	11:30	19:00	계	1. 2
2,339	126	67	123	362	126	804(34%)	684

♣ 말씀의 꽃송이

“맹세코 내 입술은 허위를 말하지 않고 내 혀는 거짓을 이야기 하지 않으리라”(욥 27, 4).

욥 기
욥기는 무죄한 사람도 슬픔과 고통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욥기에서는 <u>현세의 행운과 복이 하느님의 축복이요, 선행과 성실의 대가가 구원이라는 진리가 고통에 의해서 도전을 받는다.</u> 그는 무죄한 몸으로 고통을 당하나 하느님께 대한 변함없는 신앙을 고백한다. 이름 제정 과정 욥기는 구약성경의 세 번째 부분인 성문서에 속하는 지혜문학으로 욥기라는 성경 이름은 이 책의 주인공인 ‘욥’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다. 저 자 욥기라는 독창적인 견해를 남긴 저자는 의인들이 고통을 당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 전통적이 아닌 새로운 견해를 집요하게 추구했던, 유난히 고통과 하느님의 정의에 민감했던 사람으로 여겨진다. 저술 연대 기원전 13세기의 모세 시대부터 가까이는 기원전 2세기의 마카베오 시대까지 들고 있는데, 바빌론 포로기 전·후라고 본다. 욥기는 고대에서부터 내려온 이야기를 바탕으로 쓰였을 것으로 본다. 저술 동기 욥기는 고통에 관해 묻고 항의하는 책이고, 하느님의 정의와 함께 인간의 삶의 목적과 의미에 대한 궁극적인 물음이다. 고통의 원인은 밝혀지지 않는다. 의인이 당하는 고통은 인간 삶과 연관된 하나의 신비다. 문제는 고통을 어떻게 받아드리는 가이고, 궁극적으로 문제의 답을 얻을 곳은 영원하신 하느님, 창조주 그분 안에서이며, 결국 답은 하느님께 대한 신뢰뿐이다. 욥은 하느님의 놀라우신 현존을 체험하고 그분께 승복한다.

♣ 우리들의 정성(1. 3 - 9)

교 무 금(62세대)	4,795,000
주일헌금(1/9, 804명)	2,973,770
감사헌금(2명, 150,000)	
이미란 엘리사벳, 류광석 베드로,	
사랑의 음식나눔(1/6)	쌀10kg, 81,200

♣ 매일 성경 읽기

날 짜	성경구절	내 용
1/16 (주일)	욥 1,1-5,27	착한 욥에게 야훼께서는 사탄으로 하여금 고통의 부스럼을 얹게 하다. 자기의 탄생을 저주한다. 친구 엘리파즈가 죄 지은 욥이라고 비아냥거리다.
1/17 (월)	욥 6,1-9,35	욥이 자신의 죄 없음을 고백하자 친구 빌닷은 고통은 그와 아들들의 죄 값일 것이라고 말한다. 욥은 고통 중에서도 하느님께 대한 두려움을 고백한다.
1/18 (화)	욥 10,1-13,28	친구 초바르는 욥의 고통이 하느님의 지혜로 해결된다고 말한다. 무죄한 자신을 입증하면서 하느님께 온전히 매달리는 욥을 언급한다. 욥은 하느님께 두 가지 부탁을 한다.
1/19 (수)	욥 14,1-17,16	엘리파즈가 욥에게 죄를 인정하라는 말에 자신의 대변자 하느님이시고, 그분만이 보증이 되어주신다고 고백한다.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느님만을 희망하고 있다.
1/20 (목)	욥 18,1-21,34	빌닷의 두 번째 충고, 악인은 죽고 마는 것이라고 충고하자 욥은 자신의 결백성을 주장하며 그분이 끝내 그 자신의 변호인, 후견인임을 주장한다.
1/21 (금)	욥 22,1-27,23	엘리파즈와 빌닷의 하느님께 대한 불신의 말에 욥은 끝까지 하느님을 옹호하며, 고통을 주시더라고 그 하느님을 저버릴 수 없다고 분명코 선언한다.
1/22 (토)	욥 28,1-31,40	욥이 끝끝내 자신의 죄 없음을 주장한다. 오로지 전능하신 분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결백성과 솔직성을 나타낸다. 오직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느님께 의탁한다.